

2007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어(EFL) 교실에서 영어 문화의 교수-학습 방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박 근 혜

영어(EFL) 교실에서
영어 문화의 교수-학습 방안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Culture
in the EFL Class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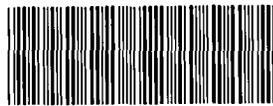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박 근 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06 2007-04-09

영어(EFL) 교실에서
영어 문화의 교수-학습 방안

지도교수 이 덕 만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박 근 혜

박근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v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B. 연구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A. 문화의 정의	3
B.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	6
C. 언어 교육과 문화	11
III. 영어 문화의 교수-학습 방안	13
A. 인터넷 활용 영어 문화 교수-학습	13
B. 모바일 활용 영어 문화 교수-학습	32
C. 원어민 활용 영어 문화 교수-학습	36
IV. 영어 문화 교수-학습에서 고려할 사항	47
A. 영어 문화 지도에서 교사가 고려할 사항	47
B. 영어 문화 학습에서 학습자가 고려할 사항	49
V. 결론	51
참고문헌	53

표 목 차

<표-1> 수업 활동 내용안	25
<표-2> 수행 평가지	26
<표-3> 중 2 학년 영어 교과서 별 문화 유형	43

그림 목 차

<그림-1> 인터넷 자료 (게임유형 - twenty questions) http://www.20q.net/	17
<그림-2> 인터넷 자료 (수업활동 내용안 - 정보문화유형) http://wilstar.com/holidays/thanksgv.htm	24
<그림-3> 인터넷 자료 (학습과제지 1. National holiday) http://www.whiteyellowpages.com/	27
<그림-4> 인터넷 자료 (학습과제지 3. People) http://www.thomasedison.com/	27
<그림-5> 인터넷 자료 (학습과제지 5. Music) http://pbskids.org/jazz/meet_a_musician_flash.html	28
<그림-6> 인터넷 자료 (email 학습자료 1)	29
<그림-7> 인터넷 자료 (email 학습자료 2)	29

ABSTRACT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Culture in the EFL Classroom

By Keun-hye Park

Advisor: Prof. Duk-man Lee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target cul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nd to devise how to teach and learn some of the elements of English culture in the EFL classroom through several mobile and internet services.

A language reflects various elements of its society such as education, economy, and culture. Generally, appropriateness of language use can be determined by each speech community, that is, by the shared social and cultural conventions of the speakers. So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different sets of culturally determined rules in communication. They will help learners understand and use the target language in appropriate contexts.

Students who want to speak English should know culturally appropriate expressions of English as well as the sociocultural sides of the English-speaking societies.

The 7th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Korea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earning foreign cultures in language classrooms. It is true that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with its culture is to live in an English-speaking society. However, Korean students have been learning English in the EFL situation. Most Korean learners and teachers of English have depended only on English textbooks to learn the cultural elements of English.

Th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through some devic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ll be of great help to the students who want to learn English with its cultural elements.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는 단일 언어와 단일 문화권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배운다는 것은 내 의사의 표현과 더불어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좁은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가 형성되어진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환경과 문화를 더불어 배운다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언어학습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의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언어를 생성시킨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요소도 습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의 습득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에서도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2001년부터 시행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문화'라는 항목을 추가하여서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와의 연계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며 특히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교육부 2001: 22).

이러한 교육 과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소홀히 해왔던 문화라는 항목을 어떻게 언어와 연계해서 지도해야 하는지 또한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하며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언어와 문화를 별개의 것으로 보던 시각을 버리고 문화 속에서 하나의 부속물인 언어를 교사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과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을 하는 교육으로 시각을 전환할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될 이 교육체계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즉, 이 논문에서는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문화라는 틀 안에서 문화 이해에 근거한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으로 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영어 문화교육의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

이 논문은 영어와 영어 문화의 불가분성과 영어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이론과 실재를 통하여 입증한다. 또한, 영어 문화도 현장감 있는 맥락에서 습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적절한 맥락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학습에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원어민 교사의 활용을 제시한다.

일상 영어 사용의 기회가 풍부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영어 문화 교육적 가치를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에서 검증하고 영어 문화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연구한다.

II. 이론적 배경

A. 문화의 정의

1. 문화의 개념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여전히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 시점에 비추어서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제 2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광범위한 문화의 개념정의를 이 논문에서는 언어학습의 관점에서 정의해보고자 한다.

문화라는 것은 내 주위에 모든 것이라고도 정의 될 수 있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이 터득한 습관, 지식, 도덕, 예술, 관습 등 모든 생활양식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가 제대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국가들이 자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한 면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한다. 즉 문화는 그 사회의 모든 것을 반영하며 그 반영된 문화는 언어로써 표출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언어교육학자인 Brown(1994: 22)은 문화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다.

“문화란 삶의 방식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며, 생각하며, 느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여 사람들을 이어주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 문화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사람들의 생각, 관습, 예술, 기술, 도구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란 한 시대와 집단,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각각의 사람들과 시대와 사회의 변천사에 따라 문화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는 문화에 있어서의 범주 상, 또는 어느 특정요인에 있어서의 정교화와 세분화의 차이일 뿐이지 그의 기본적 개념은 오히려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공통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보자면 첫째로 문화는 그 사회의 모든 것을 반영하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거나 학습되어진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역시도 사회의 전반적인 면을 반영하면서 학습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문화적인 산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문화적 지식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또한, 문화라는 것은 어떤 한 사회의 속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익혀나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지도되고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언어라는 것도 문화적 소산이기에 우리는 어느 한 사회에 소속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도되고 인솔됨으로써 학습을 하며 더욱 심도 있게 익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상호작용적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문화의 양식들을 지도하고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라는 것은 습득되고 지도하며 학습함으로써 전달이 되고 전달을 받으며 상호작용적으로 여러 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라는 것의 의미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생활양식들의 전반적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문화의 특성

국가 간 그리고 한 국가 안의 개인을 비롯하여 조직이나 집단 간에서도 문화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 간 충돌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도 한다. 이렇게 문화는 다종다양하게 존재하면서 또한 변화를 거듭하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한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해해야 하듯이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문화의 특성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문화의 특성은 연구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 보편성, 역동성, 학습성, 다양성으로 분류하여 특

히 다양성에 대한 기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문화의 다양성은 즉 인간사회의 문화 형태가 매우 상이함을 일컫는다. 문화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 특성은 국가, 지역 그리고 개인별로 지니는 다양한 문화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개인도 여러 유형의 문화를 가진다는 데서 뿐만 아니라 같은 행위를 두고 나라별로 달리 이해하는 경우로부터도 문화의 다양성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 안에 있어도 계층 간의 문화, 남성과 여성의 문화, 노인과 청소년의 문화 등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문화는 그 사회가 처했던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은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문화는 주어진 환경을 가장 잘 이용한 훌륭한 것이며 문화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듯이 우수한 민족, 열등한 민족의 구분도 있을 수 없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입장을 만들어 주고 문화의 상대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으로서 편협한 사고를 만들어 주게 된다.

이외의 특성으로 들 수 있는 문화의 보편성은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 문화 형태가 있음을 일컫는다.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복잡한 체계의 언어, 부부와 자녀 사이에 관련된 가치나 규범이 포함된 가족체계, 혼인제도, 종교 등은 각 나라가 형성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의 유형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의 역동성은 문화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 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간 움직임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동성을 언어에서는 변화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변화성이라는 것은 사회현상이나 사회구성원의 요구나 합의에 따라 기존의 언어들이 변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언어들이 생성되기도 한 것을 의미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우리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몸치’ (뜻: 노력을 해도 춤이 잘 안 춰지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로서 박자나 리듬, 율동 등이 맞지 않고 어설픈 사람을 의미) 라는 어휘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는 즉 시대의 상황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언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화의 특성인 학습성은 문화가 특정한 사회에서 살아온 자들의 삶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개인에게 학습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George Peter Murdock(1949)이 제시한 문화 양식들의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7가지로 제시한다.

- 문화 양식들은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 문화 양식들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 문화 양식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 문화 양식들은 누적적이며 내외적 조건 하에서 변화한다.
- 문화 양식들은 지속적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 문화 양식들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학습되고 공유된다.
- 문화 양식들은 신세대로 전달된다.

B.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

언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산물의 하나로서 문화를 형성하게끔 해줌과 동시에 문화의 제반 형태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이고 발달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민족 또는 국가나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 사용하는 영어와 미국이 사용하는 영어가 차이가 있고, 대만이 사용하는 중국어와 중국 대륙이 사용하는 중국어가 다른 것도 다 문화적 차이와 문화의 다변화 속에서 계속 탈바꿈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서, 중국은 대륙이라 불리는 만큼 언어도 다양하다. 56개 소수민족이 한자를 문자로 사용하지만 언어는 그 발음과 뜻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크기는 같은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방 사람과 북방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통역인이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실제 중앙방송국에서 방영하는 뉴스나 드라마의 경우 자막을 별도로 화면에 보여주어 13억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습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적잖은 비용을 투자하여 해당국가에 가서 해당언어를 학습하려는 것 역시 국내학원에서의 학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한계라는 것은 바로 다른 면이 아닌 문화를 체험하며 체득한 언어와 반대로 아무런 체험 없이 학습된 언어에서 오는 생동감과 현실감의 차이인 것이다.

언어가 문화 인 것은 그 문화 속에 언어가 있고, 그 사용하는 언어 속에 문화가 섞여있어 그 둘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가 한 사회의 문화에 전적을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포함되고 영향을 줌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문화와 언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정동빈 1991: 372).

또한, Brown(1994: 5)은 아래와 같이 언어의 개념을 정리했는데 그에 의하면 언어는 한 집단 혹은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문화라는 범주 안에서의 언어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Language is used for communication.

Language operates in speech community or culture.

Language is acquired by all people in much the same way

Language and learning both have universal characteristics.

1. 언어의 문화적 요인

'little C' 문화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것, 곧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동과 언어적 행동, 태도, 신념, 가치체계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little C' 문화 습득의 중요성은 문법성 능력 외에 학습자의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등을 중시하는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필수적이다.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어민들이 특정상황에서 언어적 행동과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고 이로 인해 'little C' 문화 습득은 외국어 습득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언어의 지도 분야에 있어서 문화라는 요소가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 GTM)은 단순히 그 언어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단순히 언어의 뜻만을 모국어로 번역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방법이었으나 이는 의사소통능력에 큰 향상을 가져다주진 못했다.

이를 비판함과 더불어서 새로 등장한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ALM)은 단순히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언어의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한 즉 실제 사람들이 쓰는 대화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생각해보아도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 자체만으로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배경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게 아마 청화식 교수법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청화식 교수법이 특히 강조하였던 언어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기능에 까지도 관심을 갖아야한다는 의사소통식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의 등장으로 언어와 그 사회의 연계성, 즉 깊게 생각하면 언어와 문화의 연계성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이다.

언어가 그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언어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인 요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어가 사회를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는 그의 문화를 형성 하며 고로 우리는 언어가 문화와의 연계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언어의 문화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간단한 예를 들어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즉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가 비슷한 뜻의 어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화적 배경이 다를 경우 그 의미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의미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해석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의사소통의 단절을 낳을 수도 있다.

이렇듯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한국어의 요소를 그대로 번역해서 영어로 옮긴다는 것의 화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 문화를 반영하는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에서 간단한 예를 통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2. 문화의 의사소통 능력

1970년대 들어서면서 언어의 사용과 사회적 상황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등장한 사회언어학은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보다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언어 습득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어휘나 문법규칙 또는 음운 체계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의 사회적 용법, 사회적 규칙, 나아가서는 사회적 적격성(appropriateness)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William Labov(1973: 25)는 사회적 상황이야말로 언어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 사회적 요소와 관련하여 언어행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대두하게 된다. 또한 인간발달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의 두드러진 특징 역시 바로 문화와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인간발달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과 환경을 다양한 형태로 상호 작용하는 존재로 인식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간과 문화 즉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바로 언어와 문화라는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John Austin(1962: 94)의 화행이론(speech act)¹⁾의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언어표현의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로서 아래의 문장은 (예)외투를 빌려달라는 뜻으로 첫 번째 화자가 발화를 하는 것이다.

It's cold today.(locutionary act; 언표적 행위)

I wonder if I borrow your coat.(illocutionary act; 언표내적 행위)

The following act of listener.(perlocutionary act; 언표외적 행위)

첫 번째 화자의 발화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날씨가 춥다는 의미만을 나타낸다는 측면을 넘어서서 그 발화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날씨가 추우니 상대방의 옷을 빌려주면 좋겠다는 요구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에 대해서는 상황적인 이해가 없이는 발화에 대한 응답으로서 언표외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날씨에 대한 답변의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위 경우에서처럼 언어가 발화가 쓰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발화의 참뜻(기능적, 언표내적 의미)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자가 의도한 방향과 다른 방향인 언표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사소통으로 진행되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문화의 요인 까지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문화 간의 화행의 차이에 관한 가장 쉬운 예는 칭찬받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칭찬을 받았을 때 겸손의 표현으로 '아니에요'라고 부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영어 문화권에서는 칭찬을 받으면 당연히 'Thank you'라고 대답하며 칭찬을 한 사람 역시도 그런 반응을 기다릴 것이다. 따라서 원

1) 언어행위이론(言語行爲理論)이라고도 한다. '언어란 무엇인가'보다는 '언어는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언어학으로서 1960년대에 영국의 언어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시한 이론으로, 특히 존 오스틴(John Austin)은 이를 '언표적 행위(locutionary act)',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수행적 행위(perlocutionary act)'로 분류하여 세 부분행위들은 동시에 수행되는 복합적인 행위임을 주장하였다.

어민이 칭찬을 했는데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겸손의 행위로서 극구 부정을 했다면 그러한 종류의 반응은 전혀 영어 원어민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칭찬한 이가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 문화권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화행의 측면에서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한다.

C. 언어 교육과 문화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시대별 영어 교육의 목표와 현재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영어교육에서의 문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으며 교육목표와 내용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오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각 시대별 교육 목표를 정리해 보면 영어과 교육과정도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영어과 교수요목 시기를 교수요목기(1945. 10~1955. 7)와 제 1~7차 교육과정(1955. 8~)의 시기로 구분한다.

교수 요목기(1945. 10~1955. 7)의 영어과 교육목표는 개인과 국제사회, 개인과 국가와 사회관의 상호연관성을 인정하면서 외국에 관한 식견을 넓히는 수단으로서 영어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며, 그 지력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요청에 따라 회화력과 작문력, 독서력의 양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문법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제1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실용성을 고려하여 미국 영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1963년 제2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시에는 진보주의적 교육철학을 도입하여 생활 중심, 경험 중심의 영어교육이 강조되었다. 이후 비슷한 양태를 보이다가 제5차 교육과정(1989)에 와서 구조주의적 이론에 근거한 내용들인 문법 사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제6차 교육과정(1995)에서는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과 직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어 전문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요약되는 교육 목표가 세워진다.

이렇듯 교수요목기로 시작하여서 6차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의사소통의 향상에 초점을 두었지만 EFL상황에서의 한국의 학습자들은 목표의 달성에는 그다지 큰 결실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를 반영하여서 바로 7차 교육과정(2001)에는 언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라는 요소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총괄적 목표와 구체적 하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01: 23).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외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기존의 6차 교육과정과 비추어 보았을 때 7차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언어 재료 가운데서의 문화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영어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영어를 습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유발되어 영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국의 문화 한계에 벗어나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균형 있는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문화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서도 중점으로 두었던 의사소통을 위해서 절대적임을 시사해주고 문화를 기본으로 한 영어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Ⅲ. 영어 문화의 교수-학습 방안

A. 인터넷 활용 영어 문화 교수-학습

첨단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의 확산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생활에서 컴퓨터라는 산물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컴퓨터를 통해 신문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쇼핑도하고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루를 컴퓨터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해보면 교육 분야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라는 것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에서의 가장 혁신적인 일을 바로 학습자들이 학습정보를 접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리적 제약 없이 컴퓨터만 있다면 학습자들이나 지도자들 어느 누구라도 무한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며 공유하며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통의 교육에 있어서는 지리적 거리적 제약으로 인해 한정되어 있는 교육의 정보의 양이 이제는 더 넓게 확산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확산되어진 정보의 양만큼 우리의 학습자에게나 교사에게 있어서 학습을 해야 할 양도 무한히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컴퓨터를 잘 활용하여서 새로운 학습의 장을 열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학습매체로서의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말은 현시대의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해진 말이다. 급속한 기술의 성장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의심 할 바 없다.

내가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은 범위를 더 좁혀 보자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한 학습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 그를 활용한 교실에서의 수업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교수-학습 매체로서의 인터넷

인터넷은 전통적 교실 수업이 제공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영어권 문화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Brian Butler(2002: 3)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면에서 인터넷이 영어권 문화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a. 세계를 교실로 가져오기

영어교사들은 실제적인 영어권 문화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은 영어교수-학습에 영어 교사와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영어권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b. 교실 수업 활동 지원하기

인터넷은 영어 수업에 포함된 영어권 문화 정보 획득 및 수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c. 교실을 세계로 개방하기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사에게, 학습자에게 교실 수업 자료 및 교수법 개방 영어 교실을 개방해야 한다.

2.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문화 교육 형태

a. 월드와이드 웹 을 이용한 정보 수집 활동²⁾

월드와이드 웹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영화, 음악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지원한다. 특히 FTP나 Gopher, E-mail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2) <http://cafe.naver.com/rain11hee/171>

이 월드와이드웹을 활용하는 교수방법은 각종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하는 영어문화 정보 수집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문화적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많은 양의 정보를 다양한 시각으로 제공한다. 이는 인터넷이 망으로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잘 활용 한 것으로서 이는 즉 국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사이트에 방문하여서 학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에 관심을 갖던 해외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내가 취하고자 하는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터넷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언어인 영어를 알아야 할 것이기에 이는 학습자에게 강한 동기와 더불어 언어 습득의 장점까지도 취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미숙한 학습자들을 위하여 인터넷의 수많은 영어 학습 site중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적합한 문화자료를 단원별로 선별 분류하여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 대화방 참여 의사소통 활동

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하여 각국 어느 누구나 다양한 정보 제시 및 의견을 상호 전달할 수 있는 경우로 대화방 참여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대화방 참여는 정의적 분위기를 형성해준다는 측면에서 학습자나 교수 모두의 측면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통한 직접적 의사소통으로서 학생들에게 모험심을 키워주고 직접 대화인 동시적 접속이기에 본인이 상대방의 문화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생활방식 등을 즉각 묻고 즉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c. 게임을 이용한 학습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게임을 통한 학습이다. 영어공부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영어공부+문화체험, 즉 Learn & Fun의 요소가 바로 게임을 통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어를 사용하면서 이와 더불어 학습자들에게 흥미까지 주는 게임의

요소를 도입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습방법이기에 어린 학습자들에게 선호되는 유형이다.

게임이라는 것은 경쟁의 요소가 있기에 인간 누구에게나 그렇듯 이기고 싶어 하는 동기로부터 게임에 더욱 몰두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학습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게임유형의 학습방법은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학습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는 게임의 요소에 학습의 요소라는 측면이 융합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게임이 그렇듯 여기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학습자는 그 규칙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언어습득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에듀테인먼트(education + entertainment) 라는 합성어로 이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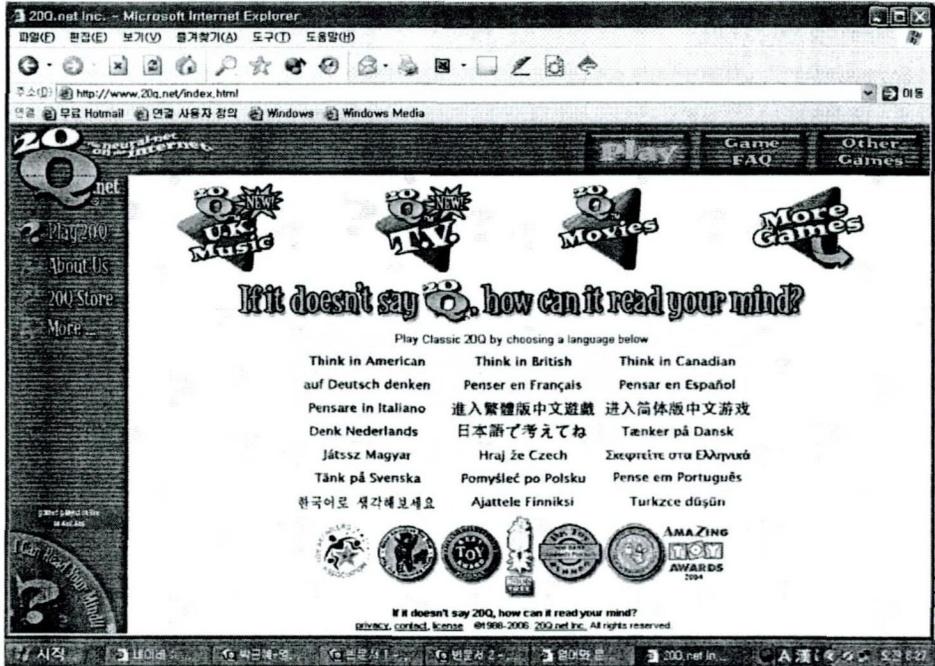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퍼즐유형의 게임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룹을 편성하여 그룹 내에서는 협동학습으로 이끌어가고 그룹 외에서는 상대그룹과의 경쟁을 통해 습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영어 퀴즈나 스무 고개(twenty questions)등을 들 수 있는데 <http://www.20q.net/>의 인터넷 사이트는 영어를 비롯한 총 21개의 언어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학습자의 경우는 영어 버전을 선택하여서 모든 과정이 영어로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제시된 영어 문화의 한 요소에 관한 주제를 스무번의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답변에 도달하게 되는데 스무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이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게임유형의 영어 문화의 학습 방법은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신장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대방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제 세계와 유사한 환경 역시도 제공해주며 무엇보다도 학습자에게 동기부여와 흥미를 이끌어 준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스무고개 유형의 게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언어 버전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세계 각국의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취하고 두 번째의 그림은 스무고개가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instruction 으로 진행

이 된다.

Think of an object and the ALL will try to figure out what you are thinking by asking simple questions. The object you think of should be something that most people would know about, but, not a specific person, place or thing.



<그림-1> 인터넷 자료 (게임유형 - twenty questions)

d. key-pal projects (비동시적 교육의 형태)

또한 누구나 가장 손쉽게 접하는 이메일을 활용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웹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가 바로 전자우편 서비스이다. 전자우편 서비스란 인터넷 사용자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살아온다. 편지라는 개념보다 이메일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는 너무도 친숙하고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누구나 하나의 메일주소는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메일을 단순히 편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생각해보자. EFL 상황에서의 우리 학습자들은 영어를 사용할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말하기 부분에서의 영어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메일은 이러한 문제점의 큰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메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에 관해서 key-pal activity 를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이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제 2언어 문화권의 사람들과 컴퓨터를 통해 메일을 주고받음으로서 구두 및 문자언어의 능력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과 메일을 주고받음으로서 단순히 언어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포함한 문화까지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학습이라는 점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흥미를 주기에 언어와 문화의 연계지도에 가장 적합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이메일을 통하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목표어를 쓰는 상대방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목표어를 쓰는 상대방과의 대화라는 것은 그와 의사소통을 함으로서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 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있어서 이메일을 통한 학습은 목표언어의 간접적 사용과 함께 문화 습득까지도 할 수 있다는 큰 효과를 입증해 오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e. 학급 홈페이지 운영

각 학급마다 영어 문화 교육의 장을 확대시켜줄 수 있는 학급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협동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각 학급의 홈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성하며 다른 학급의 학생들도 자유로이 참가하여서 더 넓은 경험의 기회를 갖도록 해준다.

① 영어 학습 자료방 (English Learning)

이는 학습자들에게 수업시간의 영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정보를 기능별로 제공한다. 즉, '이해 기능' 학습을 위한 듣기, 읽기, 어휘, 문법이나 '표현 기능' 학습을 위한 쓰기, 말하기 등 교과외의 각 단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화 교류 광장 (Cyber Cultural Exchange Forum)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학습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 주제에 관하여 각자의 솔직한 의견을 올림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통해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다.

③ 질문하기 (Let's Make Q & A)

학습자들이 영어 대화에 필요한 언어 패턴들이나 문화요소들을 주제별로 낙서하듯 쓰는 곳이다. 정확한 영어 표현이나 미국문화에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은 학습자는 이곳에 직접 문의하여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혹은 원어민 교사나 다른 교사로 부터 대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④ 자유게시판 (Students' Cafe)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영어문화 학습 활동 소감뿐만이 아니라 여러 흥미 사항 등 자유로운 글을 올릴 수 있다. 개인 또는 각 조에서 특정 주제에 관한 의견을 올려놓고 그에 대한 각자의 찬성, 반대 의견을 올림으로써 비판적, 분석적 판단력 및 포용력 신장을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⑤ 정보공유방 (Share!)

학습자 및 교사들은 영어·영어권 문화 학습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다.

3. 인터넷 활용 영어 문화 수업의 실제

이장에서는 앞에서 활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영어 문화 교육의 형태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의 학교 교실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a. 준비 단계

이는 수업활동의 전에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첫번째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권 문화교육 내용 투입 시기에 대한 것으로써 전체 영어 학습 과정 중에서 영어권 문화내용을 본론(Development)부분에 투입하고, 그날의 언어학습 내용을 배운 후 관련된 영어권 문화 내용을 투입하여 흥미를 지속시키고,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영어권 문화교육 목표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학생들의 흥미를 자아내고 수준에 맞는 문화 소재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언어학습이 되도록 한다.

또한 한국과 영어권 문화를 서로 비교 지도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최근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상황을 고려한 영어 표현을 비언어적인 요소와 함께 교육한다.

세번째로는 영어권 문화교육 학습 과정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위해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학습과 영어권 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이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목표를 파악 한 후,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어 학습과 관련된 문화내용을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사진, 이야기, 노래, 연극 등으로 제시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기대를 고취시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날 배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발문과 활동으로 영어권 문화를 바르게 익히도록 한다. 즉 이와 같은 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 첫째,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들
- 둘째, 어떤 상대와 어떤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왜 그러한가에 대한 내용
- 셋째, 영어권 생활양식 중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히 알아야 하는 점들
- 넷째, 영어권의 의사소통 방식 및 생활양식과 대비되는 우리 문화의 의사소통 방식과 생활양식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자면 처음으로 언급한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은 표현, 강세 및 억양, 담화구조, 화행을 사용하는 방식과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말과 글의 내용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은 시선, 표정, 손짓, 몸짓, 자세, 개인적 공간, 행동 등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러 의사소통 방식들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전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는 대화의 상황이나 상대, 또는 화제 즉 각 문화권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경우, 사용되는 억양, 어휘나 구문, 담화구조, 화행 등을 통해 격식을 차리는 정도, 공손한 정도, 진지함 등이 전달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경우에는 일부 표정이나 손짓 또는 몸짓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며, 시선, 얼굴표정, 자세 등이 대화에 대한 관심도, 집중도, 공손함 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문 좀 열어 주세요.”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억양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공손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미안해” 혹은 “고마워” 라고 말하는 학생의 자세와 얼굴표정을 보고 그 학생이 얼마나 진지한지 또는 진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단어나 문장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미가 억양이나 표정, 몸짓 등이 전하는 메시지의 의미와 다를 경우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후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멸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억양을 사용하거나 표정을 짓는다면 듣는 사람은 심중팔구 말하는 이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불쾌하게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과 함께 전하고자 하는 의사에 부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각 문화권마다 아주 상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문화교육의 내용에는 영어권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들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그런 방식들이 사용될 때 어떤 이유로 적절 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점들에 대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인 생활양식 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학생들이 영어 원어민과 흔히 교류하는 경우에 처하는 여러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점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식사할 때의 예절, 식당에서 주문하거나 종업원을 부를 때 지켜야 할 점, 공공장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 명절풍속, 교통체계, 시간관념, 가정이나 학교생활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문화에 대해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우리 문화를 계승, 유지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영어권의 의사소통 방식 및 생활양식과 우리 문화의 것을 대비시켜서 다루면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b. 지도 단계

이러한 영어문화의 투입시기와 목표와 내용 선정 등에서의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후 교사는 실제 지도 단계에 들어선다. 앞에서 논의된 문화 내용의 소재를 고려하여서 교사는 한 학기동안의 문화 내용을 선정하여 각 발달 단계별로 내용 안을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영어 문화 교육을 한 학기 즉 3월부터 7월의 과정으로

하여 총 5단계의 수업 활동 내용 안을 작성한다. 교사는 각 단계별의 주제에 알맞은 인터넷 사이트를 목록에 함께 작성하여서 학습자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영어 문화의 요소들에 당황하지 않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부분의 제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계의 학습 내용으로는 도입 부분인 만큼 학습자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어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영어문화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아가는 단계로서, 해당주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사하여 알아가도록 학습자를 인도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할로윈(Halloween)이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등의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언어의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영어문화의 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화요소와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특히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영어권의 학교 문화의 요소를 내용으로 선정하여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영어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을 조사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예를 들자면 영어권 학교에서의 학급회의 시간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습자는 이를 조사하여서 우리나라의 학급회의 문화와 비교하여서 차이점 및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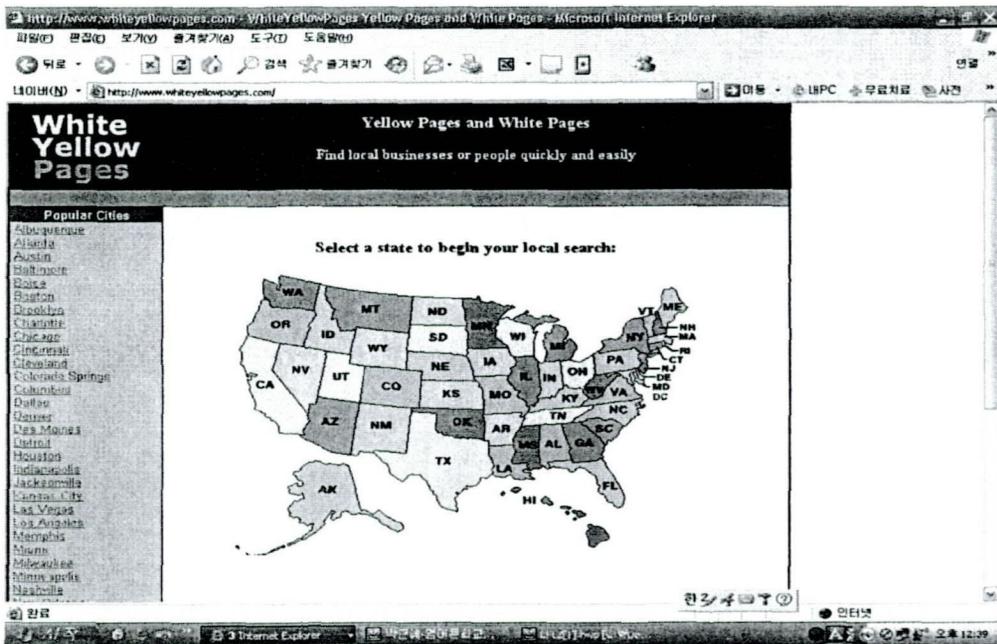
세번째 단계는 심화 과정으로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하도록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인터넷을 통한 영어권 문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그룹을 편성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는 인터넷을 통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수많은 도시 중 학습자가 가고 싶어 하는 한 나라를 선정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여행을 통해 학습자는 영어학습의 동기와 흥미를 갖게 되고 문화적 요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영어문화의 가상체험을 통한 학습자들의 반응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반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윤진섭, 1999: 42).

“과제가 좀 어렵기는 했어도, 영어를 통해 뉴욕 문화를 하나하나 찾아서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다.”, “뉴욕 여행은 나에게 매우 뜻 깊은 숙제였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실용성을 느끼지 못했던 나는 이번 과제를 계기로 더욱 더 인터넷을 통한 영어권 문화 세계로 빠져들고 싶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영국에 관한 사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및 영어권 문화 학습은 사실적이다’라는 항목에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영어 사용 및 영어권 문화 정보를 매우 사실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반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영어는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런던 정보가 자세하 있어서 좋았다.”, “전부터 뉴욕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뉴욕에 관한 인터넷 정보를 보았다. 이 기회로 뉴욕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영화에서 보던 ‘엠펙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1학년, 2학년 때 교과서에서 배운 런던 사진, 또한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었고, 미국의 독립 기념일에 관한 정보도 알았다.”



<그림-2> 인터넷 자료 (수업활동 내용안 - 정보문화유형)

<표-1> 수업활동 내용안

학습 일정	학습 단계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활용방안
3월	1단계	정보 문화	우리나라에는 없는 영어문화의 요소를 이해한다.	위대한 인물 미국의 역사 미국의관광지	http://www.history.com/ http://federalistnavy.com/ht tp://kclibrary.nhmccd.edu/d ecades.html/	정보 검색 정보 수집
4월	2단계	정보 문화	우리나라와 영어문화의 요소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한다.	미국 학교문화 미국 가정문화 미국 사회문화	http://www.zompist.com/a mercult.html	정보 검색 정보 수집 각 나라별 비교 분석
5월	3단계	행위 문화	영어권의 언어적 요소와 더불어 비언어적 문화요소를 알도록 한다.	나라별 인사법 및 gesture의 다양한 의미 비언어적 의사소통	http://en.wikipedia.org/wiki /American_society#Body_c ontact_and_expression	정보 검색 정보 수집 각 나라별 비교 분석
6월	4단계	체험 문화	영어권 문화가 제시된 영화를 통해 역할극의 기회를 갖는다.	상황별 문화	http://www.movist.com/mo vies/movie.asp?mid=39879	영상 자료 시청
7월	5단계	체험 문화	가상체험을 통해 영어문화의 간접 경험의 기회를 갖는다.	뉴욕 탐방 할리우드 탐방	http://www.whiteyellowpa ges.com/	가상체험 (simulation)

c. 지도 후 활동

이와 같이 지도가 이루어진 후에 교실 내 혹은 교실 외에서도 학습자들은 그들이 수업을 통해서 익히게 된 영어 문화를 실제 생활에서도 유용할 수 있도록 추후 활동을 교사가 제시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시된 영어 문화 내용들을 학습의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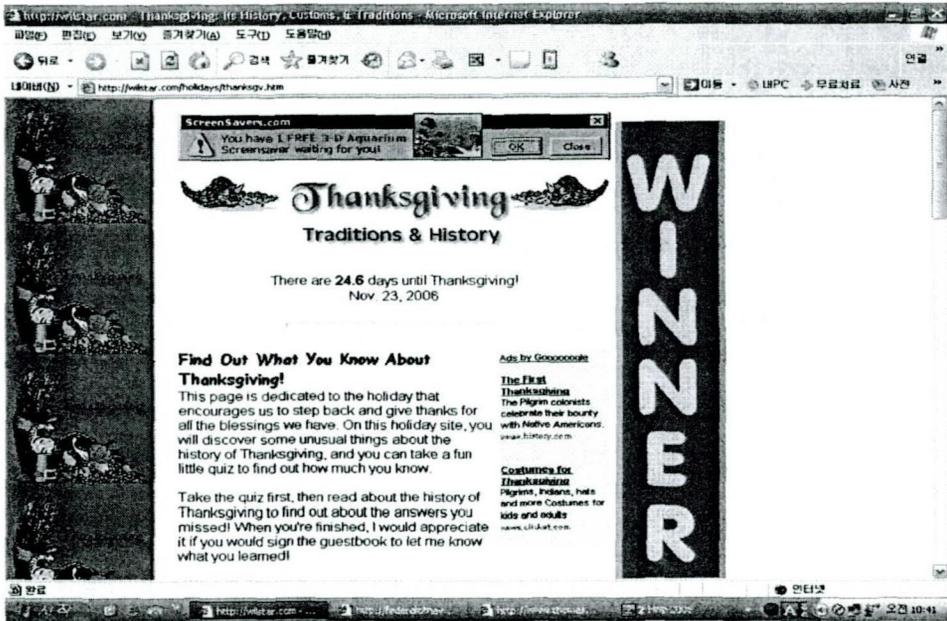
지의 과제란에 제시하거나 또는 직접 수행 평가지를 분배한다. 학습자들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과제에 알맞은 정보를 검색 하여 수집한다. 정보의 수집 후에 평가를 작성하여 교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발표의 기회를 갖게 하여서 다른 학습자들이 완수해 온 과제의 정보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그 후 각 수행 평가를 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사는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수업시간에 학습한 영어 문화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다음 수업활동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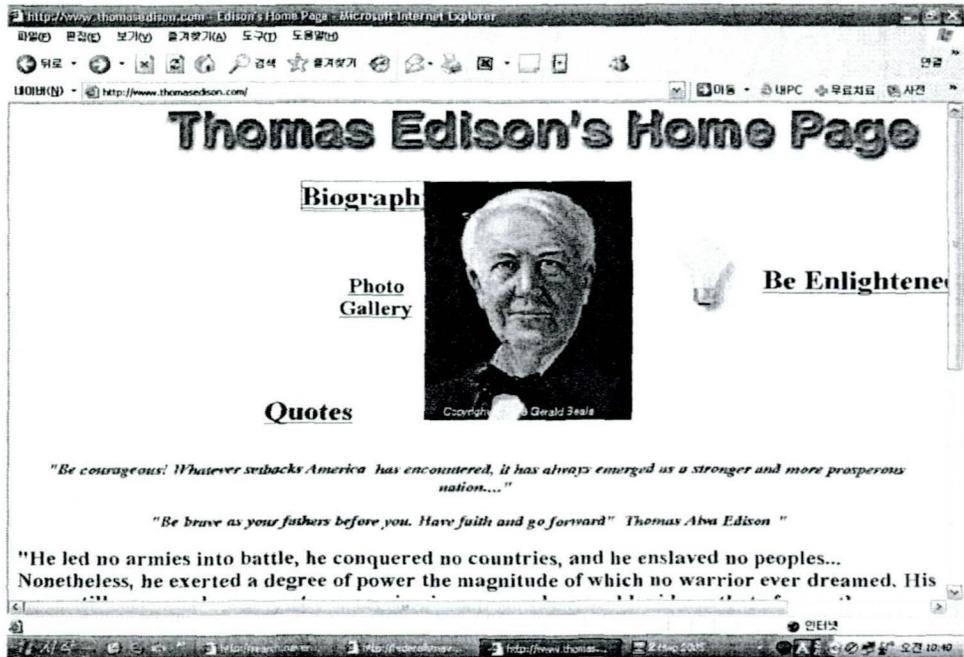
아래의 수행 평가지는 위의 표-1에서 제시한 3월 과정의 1단계에 해당하는 미국의 인물이나 휴일등 영어권만의 고유문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다.

<표-2> 수행 평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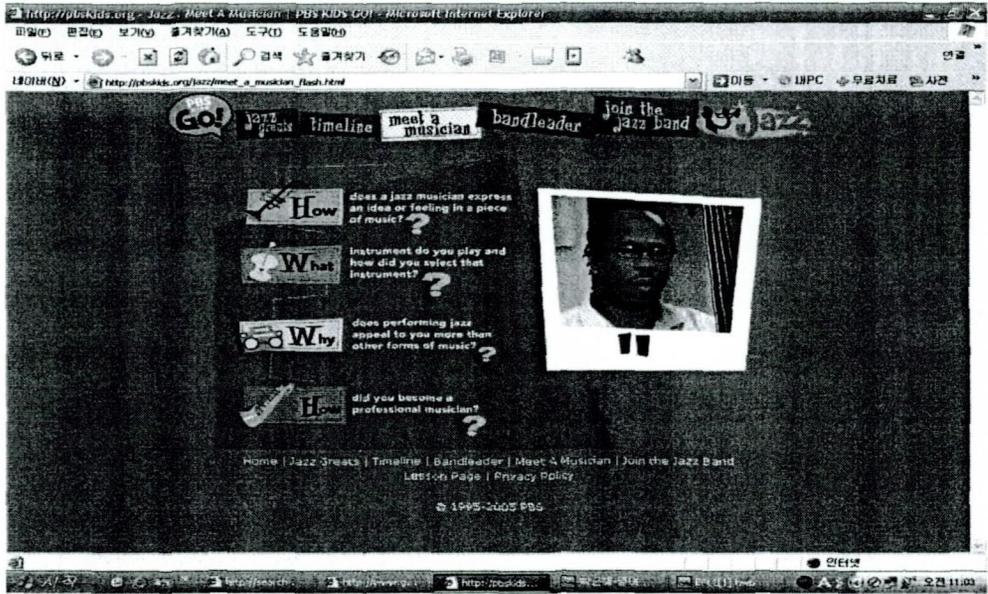
Title : English Culture		Name :	Number:
Instruction : Click on web site.		Answer	활용가능한 웹사이트
1.National holiday	What do Americans eat on Thansgiving Day?		http://wilstar.com/holidays/thanksgv.htm
2. Festival	What do chidren play on Halloween?		http://wilstar.com/holidays/hollowin.htm
3. People	Edison invented.....		http://www.thomasedison.com/
4. Place	Where is the capital of America?		http://www.whiteyellowpages.com/
5. Music	The instruments of Jazz are.....		http://pbskids.org/jazz/meet_a_musician_flash.html



<그림-3> 인터넷 자료 (학습과제지 1. National holiday)



<그림-4> 인터넷 자료 (학습과제지 3.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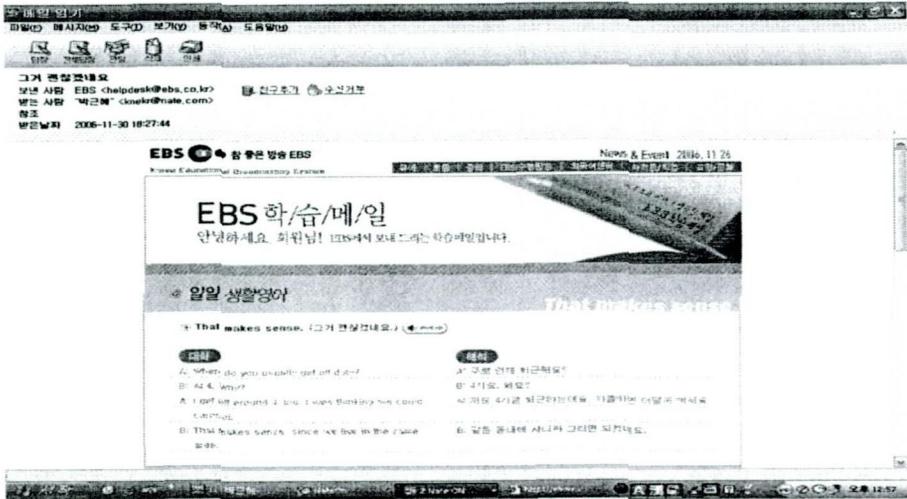
<그림-5> 인터넷 자료 (학습과제지 5. Music)

이 사이트는 질문을 클릭하면 원어민이 직접 음성으로 설명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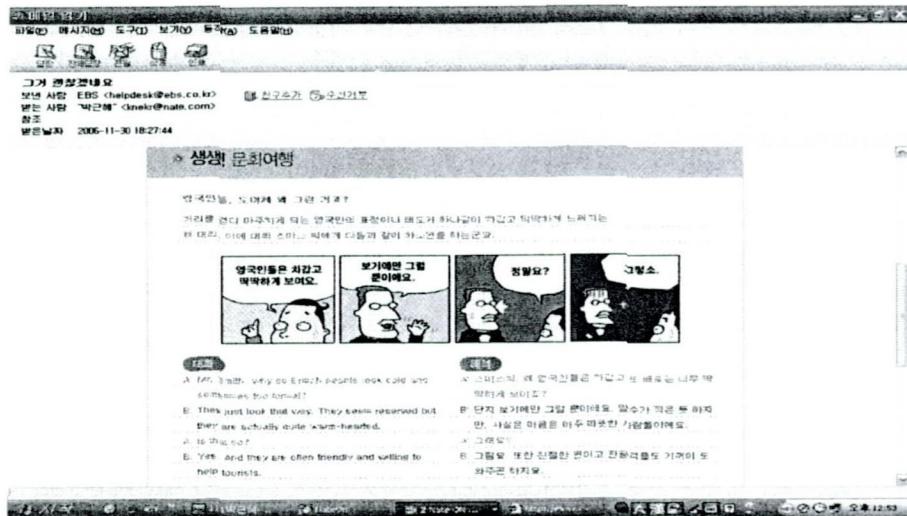
d. 방학 중 활동

학습과제까지 제출이 된 후 교사는 이를 점수로서 평정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의 학습에 연계하여 학습자들 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학 동안에는 학습자들 개별적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별 메일을 활용 한다. 즉 이의 활용방안을 학습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EBS에서는 '학습메일' 이라는 타이틀로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주어 학습의 장을 마련해준다. 메일의 구성내용은 '일일생활영어'와 '생생! 문화영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sound' 로도 제공되기에 학습자들은 메일의 텍스트를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생생! 문화영어'항목은 한 가지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그 상황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영어의 모국어화자와 비모국어화자간의 대화에서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기 쉬운 오해를 다룸으로서 학습자들의

이해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 메일의 활용방안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과 새로운 내용들을 메일을 통하여 다시 접해봄으로서 심화 확대 수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문화영어의 구성요소는 영어권의 생활환경과 문화를 실생활 회화와 접목시켜서 학습자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해 주기에 영어에 친숙하지 않는 학습자일지라도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다.



<그림-6> 인터넷 자료 (e-mail 학습자료 1)



<그림-7> 인터넷 자료 (e-mail 학습자료 2)

4. 인터넷 활용 영어 문화 교육의 효과

Krashen(1983)에 의하면 목표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목표어의 학습에 용이하다는 Input Hypothesis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영어권의 양식들을 접하기 쉽지 않는 문제점들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가치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무엇보다 우선 인터넷은 90% 이상이 영어로 되어있기에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통합시켜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즉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장을 확대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일지라도 다른 매체보다 더욱 실제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권 문화 공동체로 가는 하나의 연결체이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교사는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영어 문화를 교육내용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 지도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은 기존학습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웠던 살아있는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기회가 풍부하다. 즉 외국인과의 친밀도와 접촉 빈도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영어권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원어민과의 실시간의 접촉을 통해 영어권 문화의 현재로서의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학습자는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목표문화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과거에 교사에 의해 미리 설정된 과업을 수행하면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입력·이해했던 과거 학습법과는 달리 학습자 스스로의 선택과 흥미에 따라 독자적인 학습을 설계·진행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셋째, 영어권 문화의 변화까지도 반영되는 최신의 실제적 자료와 그 무한한 양을 들 수 있다. 문화라는 것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며 함께 변해 가는 것임을 감안 할 때, 과거의 교실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가 과연 이 변화를 얼마나 융통성 있게 반영해주는 최신의 자료였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접속 순간마다 최근의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된 www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하나하나 열람할 수 있으며, 그림, 사진, 동영상, 소리 등을 통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영어권 문화의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이는 이러한 정보들이 처음 생성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도 적절하게 수정·보안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과 융통성이 큰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지도 방법은 전통적인 학습 방법에서 지적되어 온 한계를 극복시켜줄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전통적인 자료는 최근의 현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인터넷은 영어 교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화하는 최근의 문화 정보를 획득하여,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교과와 핵심 내용 및 현상이 빠르게 변하지 않는 과목의 교사에게는 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영어 교사에게 있어서의 인터넷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근의 주목할 만한 상황이나 개념을 소개하여 학습자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5. 인터넷 활용 영어 문화 교육의 보완점

많은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영어문화 교육을 위한 인터넷 교수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ESL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우리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우리는 EFL상황에서의 인터넷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육의 주도자가 되는 교사나 학습자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인터넷 매체를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체의 측면에서는, 대량의 학습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대용량의 저장 공간

과 처리능력을 갖춘 컴퓨터와 이의 개발을 위한 재정적 차원에서의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른 한 편으로 학습자 그리고 교사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매체의 발전이 과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명 비판론적 시각과 함께, 전자적인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혼합교육(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방안을 들 수 있는데 혼합 교육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 시간 및 비용의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이는 온라인학습의 장점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만을 모은 교육으로서 평생 학습시대에 혼합교육의 잠재력을 이용하여서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혼합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합 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거나 자율 학습 방식에 온라인 협동 학습을 접목하는 방식,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전략에 오프라인으로 보조하는 방법 등 각 교육 주체마다 가능한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면대면 교육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실제적 문화요소의 흡입을 과연 매체로서가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인터넷을 매개로 한 교육체계를 생각해보아서 더욱더 개선 및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B. 모바일 활용 영어 문화 교수-학습

1. 모바일 교육의 정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어문화 교육이 교실 내에 있는 컴퓨터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E-러닝(웹기반 교육)을 넘어선 M-러닝(모바일 교육)의 시대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나 모바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듯 10대의 중고생들 사이에서 모바일은 이미 필수품

을 넘어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매체에서 특히 휴대폰은 단순히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통신의 차원을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무선 PDA³⁾, 랩탑 컴퓨터와 여러 가지 기능이 첨가된 휴대폰을 이용해 신문을 읽고 택시에서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화상회의를 가능케 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무선으로 데이터 접속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특히 10대의 학습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바일 통신은 손쉽게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 교실내의 컴퓨터 수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모바일을 이용한 교육은 그러한 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데 큰 효과가 있다.

허병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네기 멜론 대학은 캠퍼스 곳곳에 시스템을 설치, 학생 및 교수들이 랩탑 컴퓨터를 통해 이메일을 교환하고 온라인 토론을 하게끔 하고 있다. 전화선이 있는 곳을 찾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 대학이 추진 중인 Wireless Andrews라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학교 및 주변 지역 600여 곳에 접속 가능 포인트가 생겨 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한다.⁴⁾

이렇듯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에서도 교실 내의 컴퓨터를 넘어서서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모바일 서비스의 교육 내용으로 오프라인 콘텐츠를 그대로 옮겨온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에 맞춘 콘텐츠가 속속 개발돼 '손바닥 안의 교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접속하여서 활용하는 모바일 교육 외에도 동요, 수능, 운전, 취미생활 등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M-러닝(모바일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 매체 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한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둔 콘텐츠들이 무수히 쏟아져

3)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 : 휴대용 컴퓨터의 일종으로, 손으로 쓴 정보를 입력하거나 개인 정보관리, 컴퓨터와의 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를 의미 한다.

4) 이 조사는 Vision 2002년 1-3월호(허병희) 에 기재된 조사를 바탕으로 참고한다.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을 이용한 교육을 어떻게 문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가? 모바일도 역시 인터넷을 이용한 매체로서 앞에서 살펴본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 문화 교육의 효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교육 콘텐츠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므로 어떤 다른 매체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을 활용한 영어문화 교육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2. 모바일 활용 영어 문화 교육

a. 어학 문화

어학 문화는 모바일 교육 콘텐츠 중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 이는 교실 내에서 쉬는 시간이나 이동시간에 학습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 통신사의 음악포털 '멜론(melon)'은 어린이영어, 수험생영어, 생활영어 등 EBS의 다양한 어학문화를 제공한다. 각각의 학습자의 욕구에 맞추어서 필요한 분야의 교육정보만을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것인데 각각의 학습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

영어 문화에 대한 수업시의 학습자가 이해가 가지 않던 영어 문화 교육의 내용들을 그때그때 검색하여 알아갈 수 있기에 교실 수업과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b. 놀이 문화

호기심 많은 학습자들을 위해 놀이와도 같은 교육용의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키즈 랜드'는 어린 학습자를 위해 동요와 동화, 게임 등 놀이를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저학년의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다. 유치원에서부터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동요마을, 동화마을, 놀이마을, 학습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것으로서 놀이를 하면서 학습자들이 문

화적인 요소까지도 습득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하겠다. 특히 동요마을은 영어동요를 접하게 되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언어 교육과 음악 문화에 대한 교육까지도 이루어 질 수가 있다.

c. 영화나 TV의 활용

학습자들이 휴대폰이나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를 통하여서 각각의 관심사에 맞추어서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 시트콤이나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시청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른 원어민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의 학습의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 교실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교사들은 학습자에게 주제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그 주제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운받아서 각자 개별 학습을 한 후에 그룹토의로까지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여러 통신사들에서는 영화 시청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U-포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d. 영어 문화 외의 활용

영어 문화 외에도 모바일은 문화적인 요소외의 다양한 영어교육의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어학 시험과 관련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능 강의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와 또한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학습 서비스로서 전자수첩, 영한사전, 인터넷 정보 검색 기능은 물론 중고생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동영상 학습, 테마학습, 이야기학습 등 학습욕구를 자극하고 지루하지 않은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듯 모바일은 손안의 작은 컴퓨터로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매체로서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는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방안들을 더욱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C. 원어민 활용 문화 학습

위에서 소개해온 방법이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방법이라면 그와는 반대의 시각에서 문화교육을 위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면대면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자체가 인위적이 아니기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영어 문화의 흡입이 가능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 연습을 통하여서 명시적 지식을 자동화시키기에 적합하며 형식적으로서 주어지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들은 과업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이 사용되기에 다양한 종류의 지식들을 내면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업의 단원에 따라서 많은 표현들과 상황들을 같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단원들이 비순차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능력과 수용영역을 생각하여서 단계적으로 제시 되는 것이기에 교실학습을 통한 영어 문화지도는 현 EFL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실에서 활용되어온 많은 방안들을 살펴보면 모든 교과목이 그러하듯이 영어라는 2외국어의 학습 역시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확대되어온 경우가 흔하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현재의 학습자들이나 지도자들은 교과서 중심의 영어 문화 학습이나 혹은 교과서보다 더욱 확장되어진 교과서 외의 자료 및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방안도 많다고 할 수 있다.

1. 원어민 보조교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은 대부분 상황을 보고 듣고 따라하고 반복 연습하는 것은 편리한 교실 기법이지만 실생활의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못한다. 영어를 오랜 기간 공부하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어 학습자가 영어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성 (1996)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외국인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은 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 학습활동이 체험중심으로 제공되므로 학습자에게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강한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 (2) 원어민 보조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내국인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간에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지므로 상대방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3) 원어민과의 만남을 통하여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 즉 정의적 여과(affective filter)를 낮추어 주고, 외국인과의 대화에 자신감을 길러준다.
- (4) 협동수업 방식은 두 사람의 교사가 교실에서 함께 가르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대화자가 필요한 상황의 재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학습자에게 사실적인 대화상황을 보여 줄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어민과의 접촉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현 EFL 상황에서 목표 언어권의 나라를 가지 않고도 그 언어를 실제로 접하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에 문화가 반영된 언어 즉 직접적인 흡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원어민 교사 활용의 사례

원어민 교사의 활용에 관한 다각적인 관점 아래에서 실제로 원어민 교사를 학교 환경에 적용하고 있는 한 예를 한 언론사가 조사한 것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자 그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채민일보 2006. 6. 27)

이 조사의 대상 학교는 대신중학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학교는 5년 연속 원어민 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학교로서 원어민 교사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파견되었으

며 그 중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프로그램⁵⁾ 소속으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배정되었다. 이 학교에서의 원어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자면 원어민 교사는 학기당 1번씩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 1회 회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원어민과의 실제(authentic)의 대화로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현과 모국어와는 다르게 표현되며 받아들여지는 여러 대화 패턴들을 익힐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과 교사 모두에게 단순히 교과서에서 접하는 주먹구구식의 학습이 아닌 원어민의 사회상까지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심화과정은 스크린 영어반, 어드밴스 영어반, 런치타임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스크린 영어반은 영어권 영화를 보면서 듣기·말하기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살아있는 영어를 익히기에 제격이다. 그러기에 문화 교육에서도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수업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행사시에는 영어연극 및 영어권의 예술 작품을 통해 영어권의 문화적 요소를 익히는 기회도 가졌다고 한다. 이런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다양한 문화 요소도 접하게 된다는 것이 큰 효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원어민 활용 문화 교수-학습

위의 대신중학교의 사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어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영어라는 언어만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언어에 내포된 많은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들 까지도 익혀야 하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토대로 원어민을 활용한 구체적인 영어문화 방안을 알아보자.

5)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우수한 국제교육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지원자의 소속기관이나 지역,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실력위주의 공개경쟁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원어민의 교과서 지도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손쉬우며 학습자들에게도 가장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교수 방법은 당연히 교과서이다. 우리는 이 교과서를 단순히 텍스트와 듣기 읽기 쓰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재를 활용하여 문화지도를 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7차과정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문화라는 요인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영역에서도 강조가 되어오고 있는 실정인 이 문화를 교과서를 통해 지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을 할시 우리나라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중교육(bilingual program)이나 팀티칭(team-teaching program)을 들 수 있다. 한국인 교사는 지도해야 할 한 단원의 문법적인 사항이나 형식적인 부분을 지도하고 그 후 원어민 교사는 그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학생들과 직접적인 토론이나 role-play로 진행하면서 그 상황에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도 함께 지도한다. 각 단원에 나와 있는 영어문화의 요소들은 원어민 교사의 직접적 설명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각단원의 끝에는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를 통해 새로 배운 문화 요소를 실제 생활에서도 직접 접하며 수행해 볼 기회를 갖게 해주는 교과 과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음은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의 교과서 중 문화적 요인들에 관련된 단원으로서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 시 더욱 효과가 있는 몇몇을 조사한 결과이다.

첫 번째로 아래의 본문은 두산 동아 출판사의 중학교 2학년의 영어교과서의 10 단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Lesson 10. Holidays in Fall

Mina: Hello. Can I speak to David, please?

David: This is he. Who's calling?

Mina: This is Mina.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Do you remember?

David: Oh, yes. How have you been?

Mina: Pretty good. You know, this Saturday is Chuseok. It's like Thanksgiving in America.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have dinner with my family?

David: I'd love to. What time do I have to be there?

Mina: Around 6 p.m.

Ghosts on Halloween

If you are interested in ghost stories, you may want to hear about Halloween. On Halloween, which is October 31, American children dress up as ghosts and monsters. In the early evening, they go from door to door to collect candy.

When you open the door, the children shout, "Trick or treat!" Then you put a treat into each child's bag. Later, the children go to Halloween parties or get together to tell scary stories.

Some people believe that ghosts and monsters come out on Halloween. So children dress up as ghosts or monsters to deceive the real ghosts and monsters.

위의 본문은 한국의 명절인 추석과 미국의 할로윈데이(Halloween)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어민 교사는 이를 지도 시 한국의 추속에 해당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을 한국의 명절과 서로 대조하여서 각각의 나라에서 보내는 명절의 모습들과 비슷한 점 및 다른 점들을 설명해주도록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본문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본문의 내용을 넘어서서 각 나라의 문화적 요인까지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또한 원어민 교사는 이 단원을 토대로 한국의 추석이라는 명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텍스트인 할로윈데이의 내용은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낯선 문화로서 원어민 교사는 본문을 토대로 하여서 학생들에게 할로윈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미국의 할로윈데이에 해당하는 날에 학생들과 직접 할로윈데이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여서 학생들에게 "Trick or treat!" 이라는 문장 등

할로윈데이의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음 본문은 교학사 출판사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의 7단원의 내용 중 일부이다.

Lesson 7. E-mails from Abroad

Topic 1. An E-mail from the U.S.A.

Mira has a key pal, Mike, in U.S.A. Mira lives in Suwon. She wrote to Mike about her classes. This is Mike's response.

You take more classes than we do. American students take about seven subjects a semester: English, math, science, social studies, music, art and physical education.

The first semester starts in August and finishes in December. The second semester starts in January and finishes in May. Therefore, we have a long three month summer vacation. But we don't have a winter vacation, we only have Christmas Holidays.

We have only one study period. In the afternoon, we play sports or do other activities. We take part in clubs or in study groups. I'll let you know how it goes.

Your friend, Mike

Topic 2. An E-mail from a British Student

Insu has a key pal, Susan, in Britain. Insu lives in Seoul. He wrote to Susan about his school life. This is Susan's response.

How have you been? Thank you for your e-mail about your school life in Korea.

We also have a lot of homework. Our weekly homework is a matter of school policy. Our homework is set in some subjects. I usually spend from thirty minutes to one hour working on it. It's often too much for me to finish.

Also, we should always wear a school uniform and we can't use bad language. We should not make too much noise in class or fight. I think our school has too many rules. How about in your country? Please let me know about that in your message.

Your friend, Susan.

DIALOGUE

Think about your answers and talk with your friends.

What time do American students usually finish school?

What do they do after school?

What kind of activities do they usually do?

위의 본문은 한국의 한 중학생과 미국, 그리고 영국의 또래 학생과의 이메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 나라의 학교 문화를 서로에게 소개해주며 각기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직접 이메일을 작성하여서 key-pal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준다.

또한 각각의 본문 뒤에는 Dialogue에 해당하는 질문의 내용이 주어져서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과 원어민 교사와의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본문 이해도를 검토함과 동시에 각각의 나라에 대한 궁금했던 문화적 요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문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단원들을 한국인 교사보다 원어민 교사가 직접 지도 하였을 때 학습자들에게 더욱 진정성 있는 실제적인 요소로서 보다 더 효과적인 전달이 되며,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이외의 추가적인 문화적 요인까지도 제공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할 수 있다.

위의 두 종류의 교과서 외에도 현재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도 역시 직접적으로 문화 요소들을 본문 내용으로 다루면서 학습자들에게 영어 문화의 친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의 교과서 중 영어 문화를 다루고 있는 단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교사는 각 문화 유형별로 알맞은 설명과 토의 및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표-3> 중 2 학년 영어교과서 별 문화 유형

출판사	현대 출판사	금성 출판사
단원과 제목	Lesson 7 A video Letter from Australia	Lesson 6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문화 유형	나라 문화	언어 문화
본문 내용	As you know, Sydney hosted the Summer Olympic Games in 2000. I'm surprised that taekwondo is so popular in Australia. It's because taekwondo has been an official sport since the Sydney Olympics. Do you know what is the most popular animal in Australia? It's a kangaroo.	English is used in many fields all over the world. English is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y Korean students write to their pen pals in foreign countries. Although English is not their native language, most of them use English.
수업 유형	각 나라별 문화 특성 조사 및 발표 그룹 토의, 교사의 부연 설명	교사의 본문 설명으로 영어의 특성 이해 및 그룹 토의

출판사	중앙 교육	금성 출판사
단원과 제목	Lesson 9 National Holidays in Korea and America	Lesson 12 Marian Anderson, One of America's Greatest
문화 유형	명절 문화	인물 문화
본문 내용	Laura: What's this? Sora: It's <i>songpyeon</i> . Try some. Laura: Umm. It's good. Sora: Do you have any special food on Thanksgiving Day? Laura: Yes, we do. We eat turkey. You can try some at our Thanksgiving party.	In 1939, Marian Anderson, one of the greatest singers of the time, was not allowed to perform in Constitution Hall, Washington, DC. She was refused because she was black. She joined her church choir as a young girl. She surprised church members with her beautiful voice.
수업 유형	각 나라의 명절 문화 조사와 발표 역할극을 통한 명절 문화 체험	교과서를 통한 인물 문화 이해 및 그룹 토의를 통한 추가적 문화 탐색

b. 특별활동시간 활용

학생들의 직접적으로 학업과 관련된 수업시간외에도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함으로써 원어민을 통한 영어 문화교육도 가능하다. 학교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독서반이나 영화 감상반 등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

한 예로 독서를 통한 영어 문화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들의 말을 빌어 보자면 언어지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문학을 이용한 독서의 방법이라고들 한다. 독서를 한다는 것은 그 문학작품의 언어를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읽음과 동시에 그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까지도 익히게 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장점을 활용하여서 먼저 원어민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활용방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언어의 요소와 영어 문화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언어의 사회성과 시대성을 고려하여서 문학작품 역시도 선택하여야 문화교육과 언어교육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선정하였을 경우 원어민 교사는 그 시대의 사건이나 시대상의 여러 상황이나 문화적 요소 등을 미리 지도를 하고 작품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작품속의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그 시대만의 고유한 언어 패턴도 알 수 있도록 한다. 한 작품을 다 읽었을 경우 그 후 독서 감상문을 써서 일정 시간 발표의 시간을 갖거나 원어민 교사와 함께 연극이나 뮤지컬로 그 작품을 재연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c. 직접 대화를 통한 방법

이는 수업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외에도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원어민 교사를 만남으로서 직접적 흡입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경우, 사용되는 억양, 어휘나 구문, 담화구조, 화행 등을

통해 격식을 차리는 정도, 공손한 정도, 진지함 등이 전달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경우에는, 일부 표정이나 손짓 또는 몸짓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며, 시선, 얼굴표정, 자세 등이 대화에 대한 관심도, 집중도, 공손함 등을 나타낸다. 원어민 교사와의 직접 대화는 이러한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을 모두 접할 수 있기에 영어 문화권내에서의 대화의 여러 양식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d.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실제 경기도의 파주 영어 마을에서는 특정기간 영어 페스티벌을 시행한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 페스티벌은 학습자가 파주캠프를 여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페스티벌이라는 행사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를 문화 지도와 연계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학교 내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통해 습득하게 된 영어 문화요소를 반영하는 연극을 하거나 발표회를 갖음으로서 학습자들의 영어문화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에도 원어민을 참여시켜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원어민 교사의 영향

원어민 교사 수업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다양한 의사소통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영어로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정확한 원어민의 발음과 가장 일상적인 영어식 표현들을 직접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넷째로는 영미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 및 문화의 요소들을 그 나라에 가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배우게 됨으로써 교과서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영어 문화의 요소들보다도 더욱 진정성(authentic)있는 경험이 되며 또한 상호 작용적으로 원어민 교사들도 한국 문화를 학습자들로부터 직접 접하게 되어 두 문화의 특성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외국인과의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IV. 영어 문화 교수-학습에서 고려할 사항

A. 영어 문화 지도에서 교사가 고려할 사항

많은 매체 및 학습 수단들을 활용하여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수단들을 교실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여야만 성공적인 습득으로 이끌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7차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실에서의 주체적인 능동적인 학습자의 역할이지만 그를 이끌어주는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교사의 역할인 것이다.

교사문화는 학교의 지배적인 가치패턴과 규범을 생성한다. 즉, 제도화된 교육의 전반적 규범으로, 학교가 가져오는 제도적, 조직적 구속으로 인한 가치패턴과 규범을 만든다. 또한 교사문화는 혼돈체(chaos)라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인 교사집단은 그 문화를 하나로 규정짓기가 어렵지만 세대를 거듭해도 가르침에 있어서 교사의 의미는 학습자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EFL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할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언어 학습은 학습자와 목표 문화 간의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거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문화변용 혹은 문화동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목표 언어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언어와 문화 간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수업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즉, 영어 문화 지도 시 교사의 주의사항으로는 무엇보다 주제 중심으로 목표 문화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에서의 문화를 강조한 나머지 언어학습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고 문화전달만을 주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언어학습을 더욱 의미 있고 올바르게 하기위해서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지 단지 문화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주객전도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는 주의하며 교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 예약하기” 라는 가벼운 주제로 학습자들에게 영어로서 전달하고자 할 때 단순히 예약에 있어서 문화적 상황만을 다루서는 안 되며 식당예약에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 영어의 표현과 각 상황에서 어떤 문화적 요인의 영향으로 어떤 표현을 상용해야 하는지를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학습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자주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의 주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 타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지도라는 측면에서 학습자를 수동적인 입장으로서는 교사의 입장을 맡을 하고 학습자는 듣는 입장에서만의 수업이 아니라 교사의 지도 후에 학습자들이 직접 발화를 할 기회를 주고 role-play와 같은 언어의 4가지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서 학습자가 직접 수행하면서 언어를 익히며 간접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화 상황을 고려하면서 발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이는 각지도단원의 끝에 제시하여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수업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체를 활용할 시는 학습자가 매체를 이용하여 단순히 놀이로서만 수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시하며 통제와 가이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화의 요소인 언어를 우리는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하여야 하는가를 몇 가지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우선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를 익혀야 한다.

그 다음으로 영어권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양식을 익혀야 하며 마지막으로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익혀야 한다. 먼저 차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이해라는 기반위에 새로운 문화와 그의 요소인 새로운 언어에 한층 더 접근 할 수 있는 것이다.

B. 영어 문화 학습에서 학습자가 고려할 사항

현시대는 구성주의 즉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교육을 진단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전통주의와는 다르게 교사의 역할이 많이 변하여 왔듯이 학습자의 측면도 무궁무진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교사에 의해서 매개수단인 교과서를 통해 주어지는 지식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취하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관점은 이제 버려야 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또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능동적이고 학습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학습을 이끌어가며 진정한 학습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약한 만큼 변화의 물결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늘 그렇듯 변화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동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측면에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전통적 학습의 방법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방법을 적절히 조화를 시킨 방법에서 출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제 2언어로 제시되는 그 나라의 문화의 요소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본인이 능동적으로 각종 교수매체들을 활용하여 조사하거나 그룹 활동이나 각종 교실활동들을 통해 상대학생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문화를 이해는 것이다.

이때 가급적 학생이나 교사 모두가 제 2언어로서 교실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이는 직접적 경험이 되는 것으로서 실제 환경과 유사하기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언어와 문화의 습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과 학습자들의 정의적 여과막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는 교사에 의해서 제시되는 다양한 영어문화와의 접촉에 있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질 위험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문화적응의 단계를 거치면서 새 문화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화적응의 첫 단계에서는, 새로운 언어와 환경에 대한 행복감과 흥분(Euphoria and Excitement)을 느끼게 된다. 학습자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고 난 후에 외국인을

보면 아무런 스스럼없이 영어로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화적 차이(Culture shock)로 인해 자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커다란 차이점을 느끼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점차 문화적 차이(Culture stress)를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게 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문화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적응(Acculturation)하여 새로운 문화와 외국어를 수용하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습자로 하여금 각 문화와 언어에 대해 적정수준의 사회적 거리(Optimal social distance)를 유지하면서 적정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언어습득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단계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은 이 시기를 언어습득에 있어 문화적으로 결정적인 시기라고 인식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결 론

언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산물의 하나로서 문화를 형성하게끔 해줌과 동시에 문화의 제반 형태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이고 발달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언어는 한 사회가 지닌 총체적인 문화의 산물로서 존재하며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각 사회의 언어에는 그 사회의 특유의 문화적 의미를 드러내는 특성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언어에 문화적으로 함축이 된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또한 외국어의 학습에 있어서 문화교육이 절대적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만일 올바른 문화교육이 언어교육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주입식, 암기식으로 다른 사회의 언어를 받아들이며 익혀간다면 오늘날처럼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상호의사소통에 있어서 불가피한 오해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단지 의사소통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습득하게 된 언어는 진정한 습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교육이라는 것은 언어교육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현 사회에서 너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문화라는 틀 안에서의 문화이해에 근거한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으로 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영어 문화교육의 방법을 알아보고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며 그 중 세 가지 방안으로서 현시대에서 더욱 추구되어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매체인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매체를 활용한 영어 문화 지도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다른 한 편으로 면대면 교육인 원어민 교사를 통한 교육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의 측면에서 문화와 언어를 같이 연계지어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학교 교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의 목적에 맞추어 학교 교실을 중점으로 영어 문화를 위한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연구해보았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매체들이 소개되어왔지만 실제로 적용하며 학습에서 더 나아가 문화로 연계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기에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활용 방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그중에서 현 정보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전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주는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문화가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이를 활용한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인터넷과 모바일이 영어문화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한정되어 있는 영어권 문화학습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서 교사의 입장에서의 우리는 이러한 매체를 교실환경에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습도구의 하나로서 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 2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교육하고 있는 우리의 영어교육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영어 문화교육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여러 능력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교육하고 있는 우리의 영어교육에 있어서 등한시해왔던 문화라는 요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해하며 실제적이며 유의미한 영어문화 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하여 고찰하는 바이다. 단순히 언어능력인 아닌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실질적 영어 문화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들이 연구를 통해서 제공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01). *외국어 교육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주).
- 김광수. (1990). *문화적 요소가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논문.
- 김성우. (2003). *웹기반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통제의 정도가 학습 성취도와 태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문의. (1999). *목표문화 학습을 위한 효율적 도구로서의 인터넷*.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의재, 정양수. (2004). *새로운 영어교수법*. 한신문화사.
- 윤진섭. (1999).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교수-학습 가능성 탐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제 3권. 한국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 이광규. (1992). *문화와 인성*. 서울: 일조각.
- 이병민. (2000). *우리나라에서 조기영어교육이 갖는 효과와 의미*. *외국어 교육 연구 학술논문*, 제5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외국어교육연구소.
- 이유진, 하지훈. (2000).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English Linguistic Science*, 5권-1호.
- 이인정, 최해경. (2004).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나남.
- 장신재. (2002).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서울: 신아사.
- 정동빈. (1991). *언어와 응용언어학: 영어교육론*. 서울: 한신문화사.
- 정동빈. (1993). *영어학*. 서울: 한신문화사.
- 주은희. (2002).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교육 지도 방안의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순남. (2002).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법문사.
- 하지훈. (2002). *인터넷을 활용한 초등영어문화지도 모형 개발*. *한국영어언어과학*

학회 학술지논문, 3권.

- Amen, L. (1987).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Austin, J. L. (1961, 1970, 1979). *Philosophical Pap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ustin, J. L. (1962, 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 Brown, H.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 Butler, Brian. (2002). *Community Efforts in Online Groups: Who does the work and why*. New York University.
- Butler, Brian. (1997). *Using the world wide web to support classroom-based education: Conclusions from a multiple-case study*. In Khan, Badrul's(Ed.), *Web-based instruction*, (pp. 417 - 423). Englewood Cliffs, N.J.: Technology Publications.
- Hymes, Dell.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bov, William.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afayette, C. Robert. (1978). *Teaching Culture: Strategies and Techniques*.
- Seelye, H. N. (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